

단국대학교 2017학년도전형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해설 및 가이드답안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명하게 요약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간명하게 요약 설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가운데 『독서와 문법』 교과목의 독서의 방법, 그리고 『작문』 교과목의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는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하였는지,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종의 생물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폭력적 경쟁이 아니라 무리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나]는 “슬픔”과 “기쁨”의 통념을 뒤집는 역설과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따뜻한 사랑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 가질 것을 주장함으로써 화합과 조화라는 공생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 제시문 [다]는 토마스 크닐리의 장편소설 『선들러의 리스트』의 일부로, 오스카 선들러가 독일의 항복 선언 직후에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과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양방이 공히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당부하는 부분이다. 당부의 주된 내용은 바로 “어떤 복수나 폭력 행위”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 이은희, 「다윈은 약육강식을 말하지 않았다」.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245쪽.
- [나]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김대용 외(2015), 『고등학교 문학』, 206쪽.
- [다] : 토마스 크닐리, 서영일 옮김(1994), 『선들러의 리스트』, 239~241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평가요소 1(5점)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는 “공생”이다. 이것을 정확히 찾아내면 5점
- “공생”과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부적합한 단어인 “공존”으로 답하면 3점
- “공생” 또는 “공존” 이외의 다른 단어로 답할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공존”은 “함께 존재함”이라는 의미가 중심이고, “공생”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감”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시문 [가]의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는 “공존”보다 “공생”이 더 적절함

○ 평가요소 2(5점)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제시문에 근거하여 생물종 간의 관계가 배타적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임을 얼마나 정확하게 요약 설명하는가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평가요소 1(10점)

[가]의 핵심어 “공생”을 중심으로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정확히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생물종의 관계가 배타적 경쟁 관계라기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 관계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는 “공생”이다. 공생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나]의 화자는 슬픔의 입장에서 기쁨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서 슬픔은 가난 혹은 결핍의 세계를, 기쁨은 상대적 풍요의 세계를 의미한다. 화자는 기쁨의 세계가 이기적 무관심을 넘어 결핍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에 공감할 때 비로소 평등에 근거한 공생의 세계가 열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슬픔과 기쁨이 함께 사는 공생의 의미를 이 시에서 찾아내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평가요소 2(10점)

“공생”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의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약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다]는 독일의 항복 직후에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과 앞으로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공생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 글의 주장을 요약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과거의 사건을 빌미로 한 복수나 폭력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을 정확히 요약하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공생”이다. 생태계는 겉으로 보기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에 의해 가동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타적 경쟁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방식에 의해 유지된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수많은 생물종들은 서로를 내쫓고 몰아내기보다 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생한다. 공생이 경쟁보다 더 중요하다.

2번) 예시 답안

[가]의 “공생” 개념으로 볼 때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화자는 슬픔과 기쁨의 통념을 뒤집으면서 기쁨의 풍요로운 세계가 슬픔이 상징하는 결핍의 세계에 관심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 시의 화자와 같이 기쁨이 이기적 무관심의 벽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때, 비로소 공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공생이란 이렇듯 기쁨이 슬픔과 눈물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평등을 지향할 때 성취되는 것이다.

[다]는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낸 사실과 그 향후 대책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희생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생의 관계를 이끌어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어떠한 복수나 약탈, 폭력 행위도 삼가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포용과 공생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여러 글을 읽고 비교 설명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의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사회과 교육과정 『법과 정치』의 ‘형법의 이해’ 단원에서 다루는 형벌 이론에 대한 내용을 수험생들이 충실히 학습하였는지,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칸트의 응보적 형벌론이다. 그에 따르면, 범죄는 이성적 존재가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응보적 형벌론은 형벌의 목적을 정의의 실현과 인격의 완성에 두며, 등가성(혹은 동일한 해악, 응분의 대가)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 제시문 [나]는 베카리아의 공리적 형벌론이다. 범죄의 억지와 예방을 통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 주장에서는 사회 방위와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처벌을 비판한다.
- 제시문 [다]는 롬브로조의 선천적 범죄인론이다. 범죄는 타고난 범죄성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 견해는, 그러한 기질을 가진 선천적 범죄인은 예방이나 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사회를 방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제시문 [라]는 최근에 신설된 도로교통법 상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 칸트, 『윤리형이상학』 수정 인용.
조성민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181쪽.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191쪽.
- [나]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수정 인용.
김왕근 외, 『고등학교 법과 정치』, 164쪽.
손병로 외, 『고등학교 법과 정치』, 184쪽, 216쪽.
- [다] : 롬브로조, 『범죄인론』 수정 인용.
- [라] : 출제진 집필.

□ 평가 기준

- 평가요소 1(15점)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를 비교 설명하였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를 [가]~[다] 모두 활용하여 비교 설명하였으면 15점
- [가]~[다] 중 두 견해를 활용하여 비교 설명하였으면 10점
- [가]~[다] 중 하나의 견해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면 5점
- [가]~[다] 중 하나의 견해도 활용하지 않았으면 0점

※ 제시문 [가]~[다]의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음

- [가] : 응보주의적 형벌론, 정의의 실현, 응보적 정의, 등가성
- [나] : 공리주의적 형벌론, 사회 방위(일반 예방론), 법률의 규정(죄형법정주의), 비례성
- [다] : 선천적 범죄인론, 사회 방위(특별 예방론), 선천적 범죄인성, 사회로부터의 격리

○ 평가요소 2(15점)

[라]에 제시된 보복 운전의 처벌 문제와 관련하여 [가]~[다] 가운데 하나의 견해를 선택하여 이를 정당화하였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으면 15점
- [가]~[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논거의 제시가 불충분하면 10점
- [가]~[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5점
- [가]~[다] 중 어느 것도 정당화하지 않고 논거의 제시도 하지 않았으면 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 예시답안 1

[가]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나]와 [다]는 범죄 예방을 통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가]가 응보주의적 형벌 이론이라면, [나]와 [다]는 공리주의적 형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범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해 사회 방위를 추구하는데 반해, [다]는 선천적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사회 방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여 범죄 예방에 어려움이 있고, [나]와 [다]는 범죄 예방을 우선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에 의하면, 범죄는 타고난 범죄성의 발현이나 공익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인간이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의 예방이나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아니라 침해된 정의의 실현과 개인 인격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보복 운전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침해한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도덕적 인격의 회복과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예시답안 2

[가]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나]와 [다]는 범죄 예방을 통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가]가 응보주의적 형벌 이론이라면, [나]와 [다]는 공리주의적 형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범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해 사회 방위를 추구하는데 반해, [다]는 선천적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사회 방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여 범죄 예방에 어려움이 있고, [나]와 [다]는 범죄 예방을 우선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에 의하면, 범죄는 타고난 범죄성의 발현이나 이성적 인간의 반인격적 행위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나 인격의 완성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의 방위에 있다. 그러므로 보복 운전에 대한 대처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 법률에 근거한 적절한 처벌과 안전운전 교육 강화를 통한 예방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과도한 형벌은 부당하며,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 예시답안 3

[가]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나]와 [다]는 범죄 예방을 통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가]가 응보주의적 형벌 이론이라면, [나]와 [다]는 공리주의적 형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범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해 사회 방위를 추구하는데 반해, [다]는 선천적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사회 방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여 범죄 예방에 어려움이 있고, [나]와 [다]는 범죄 예방을 우선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에 의하면, 범죄는 이성적 인간의 반인격적 행위나 공익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범죄성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은 정의의 회복이나 재사회화가 아니라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복 운전에 대한 대처는 지속적인 단속과 침해한 행동에 대하여 확실하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선천적 범죄인은 예방이나 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해 사회를 방위하여야 한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자신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재무 설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재무 설계 능력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 교과목의 고령화와 생애 설계, 『경제』 교과목의 경제생활과 금융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하였는지,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합리적 경제생활, 자산 관리를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설명한 글이다. 합리적 경제생활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의 결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의 그래프는 생애 주기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흐름, 그에 따른 재무 설계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무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제시문 [다]는 30세의 남성 직장인 동원과 75세의 전업주부인 보영의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동원은 월급 이외의 추가 수익을 얻고자 하고, 보영은 안정적 노후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은 모두 펀드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 경험이 있으나,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라]의 표는 호황일 경우와 불황일 경우를 가정하여 펀드 A, B, C, D의 예상수익률을 제시한 것이다. 동원과 보영은 자신의 생애 주기에 적합한 자산 관리 차원에서 각각 어떤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판단해야 한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의 제시문을 통해서 합리적 선택이란 편익과 비용 사이의 상충 관계 속에서 최대 만족을 달성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나] 생애 주기(라이프 사이클)와 재무 설계 그래프를 통하여 제시문 [다]의 동원과 보영의 재무 목표가 다름을 인식해야 하며, [라]의 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원과 보영의 생애 주기에 적합한 펀드를 각각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선택의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댓값과 더불어 표준편차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 자료 출처

- [가] : 오영수 외(2014), 『고등학교 경제』, 20~27쪽.
유종열 외(2014), 『고등학교 경제』, 232~235쪽.
- [나] : 금융감독원(2012), 『즐거운 금융교실』, 95쪽.
이동환 외(2014), 『고등학교 사회』, 108~110쪽.
유종열 외(2014), 『고등학교 경제』, 242~244쪽(교사용 지도서, 297쪽).
- [다] : 출제진 집필.
- [라] : 출제진 집필.
우정호 외(2014),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152~155쪽.

□ 평가 기준

수익성을 추구하는 동원은 펀드 수익률의 기댓값이 높으면서도 위험(표준편차)이 작은 펀드 A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영은 펀드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작으면서도 기댓값이 높은 펀드 D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평가요소 1(10점)

동원과 보영의 가장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라]의 표에 제시된 펀드 예상수익률의 확률분포를 통해 펀드 각각의 수익률 기댓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해 내는 능력, 즉 표 해석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펀드 예상수익률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펀드 A	펀드 B	펀드 C	펀드 D
기댓값	20%	20%	4%	6%
표준편차	25%	30%	8%	8%

- [라]의 표에 제시된 확률분포를 통해서 펀드 각각의 수익률 기댓값과 표준편차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기술하였으면 10점
- 기댓값과 표준편차 중 하나만 정확하게 계산하여 기술하였으면 5점
- 계산한 값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펀드별 예상수익률의 기댓값과 표준편차를 모두 계산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암산에 의해서도 계산 가능하므로) 기술된 답안 내용을 통해 수험생이 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평가요소 2(10점)

[라]의 표를 분석하여 구한 펀드 예상수익률의 기댓값을, [가]의 내용을 토대로 수익성(또는 선택의 편익)으로 설명하고, 표준편차를 위험(또는 선택의 비용)으로 설명하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 펀드 예상수익률의 기댓값을 수익성(또는 선택의 편익)으로 인식하여 자산 관리 방안을 결정한다고, 즉 기댓값이 클수록 수익성이 크다고 기술하였으면 5점
- 펀드 예상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위험(또는 선택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산 관리 방안을 결정한다고, 즉 표준편차가 클수록 위험하다고 기술하였으면 5점
- 제시문과 표의 분석 및 답안의 논리성 정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평가요소 3(10점)

제시문 [가]의 내용과 [나]의 그래프를 토대로 [다]의 동원은 주택마련자금, 자녀육아비,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하여 펀드 A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설명하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 [나]의 그래프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를 근거로 할 때, 수익성을 추구하는 30세의 동원은 주택마련자금, 자녀육아비,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펀드 예상수익률의 기댓값이 20%로 (펀드 C와 펀드 D보다) 높은 펀드 A와 펀드 B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기술하였으면 5점
- 제시문 [가]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같은 크기의 편익이라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 따라서 동원에게는 동일한 기댓값 20%가 예상되는 펀드 A와 펀드 B 중에서 위험(표준편차)이 낮은 펀드 A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으면 5점
- 제시문과 그래프의 분석 및 답안의 논리성 정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평가요소 4(10점)

제시문 [가]의 내용과 [나]의 그래프를 토대로 [다]의 보영은 노후생활자금, 긴급자금 마련을 위하여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수익성도 함께 고려하여 펀드 D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설명하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 [나]의 그래프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를 근거로 할 때, 안정성을 추구하는 75세의 보영은 펀드 예상수익률의 표준편차가 8%로, 펀드 A와 펀드 B보다 작은 펀드 C와 펀드 D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기술하였으면 5점
- 제시문 [가]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같은 비용이라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 따라서 보영에게는 동일한 위험(표준편차) 8%가 예상되는 펀드 C와 펀드 D 중에서 기댓값이 높은 펀드 D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으면 5점
- 제시문과 그래프의 분석 및 답안의 논리성 정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위의 4개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총점 40점을 부여하되, [다]에서 거론된 매몰 비용을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였으면 5점을 감점함

◆ 채점 기준

- “동원은 약 5년 전에 펀드에 투자하여 약 15%의 원금손실을 경험했으며, 보영은 약 10년 전에 펀드에 투자하여 10%의 원금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 라는 제시문의 일부는 동원과 보영의 펀드 선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몰 비용(sunk cost)이다. 이를 펀드 선택의 근거로 활용하였으면 5점을 감점함

□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경제생활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자산 관리, 금융 상품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 편익이란 수익성과 관련이 있고 비용은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라]의 표에서 각 펀드의 예상수익률 평균, 즉 기댓값은 수익성에 해당하며, 예상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위험에 해당한다. [라]의 펀드 A, B, C, D는 각각 20%, 20%, 4%, 6%의 예상수익률(기댓값)과 25%, 30%, 8%, 8%의 위험(표준편차)을 가지고 있다.

[나]와 [다]에 따르면, 동원은 생애 주기에서 흑자기 초반에 해당하고 적극적 자산 증식의 투

자를 추구하므로, 예상수익률이 높은 펀드 A와 B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중에서 표준편차가 작은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에 반하여 보영은 생애 주기에서 적자기에 있으며 수익성보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추구하므로, 표준편차(위험)가 작은 펀드 C와 D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중에서 예상수익률(수익성)이 높은 D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즉,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동원과 보영의 합리적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다.